

장애인·임산부 버스타기 편해진다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 승·하차지원 공공디바이스 개발 국비 1억원 확보

전주시가 전주지역 IT 중소기업과 함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디바이스 개발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수요 맞춤형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통약자이동편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기기 개발을 통해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일반시내버스를

노선에만 구축된 전주시교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교통약자셔틀버스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교통약자들이 버스예약과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기를 활용하면 정류장에 교통약자 도착 시 정류장에 설치된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교통약자를 인식하고, 버스 내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해 교통약자가 현 위치에서 목적지를 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확인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장애유형에 맞는 서버

를 개발, 버스와 정류장간의 정보를 청각장애인에겐 시각화된 텍스트로,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으로 각각 변환해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다양한 이동편의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공공디바이스 개발에 나서는 전주지역 IT중소기업의 스마트디바이스 신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환경·안전·복지 등 공공분야의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전주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국비확보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개선,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운행되는 이지콜 등 전국 최고 수준인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결합하면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전주시 특성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저상버스 120대와 교통약자셔틀버스 3대, 장애인콜택시 이차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2대 더 증차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중점관리지역

확인의 날 행사 진행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 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점등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35사단과 전주2대대 등 군 관계자와 전주시 관련부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2분기 중점관리지역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확인 점검을 위해 민·관·군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시 동원계획의 실효성 확보 △동원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 △비상사태시 행정기관의 동원업무 실행능력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중무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부서의 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동원자원조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군수업체를 방문하는 등 중점관리대상자원 동원업체를 현지 방문하는 등 꼼꼼하게 조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동원자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군부대와 전주시 관련 부서와 함께 동원자원에 대한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음식 조리법 50년 후 공개

시, 타임캡슐에 보관키로... 전당 한식자료실에 보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전주음식 조리법과 손맛을 타임캡슐로 보관해 50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시는 전주음식의 맛을 보존·계승하고 전주음식의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음식 조리법 등 자료를 수집, 타임캡슐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료수집의 대상은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와 향토음식점, 전주음식장의업소 등 전주 고유의 업체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종부의 내림음식과 전통 가정식 등 보존 가치가 있는 100개소이다.

타임캡슐에 보관되는 자료는 요리법(레시피) 외에도 식당이나 집안의 의미 있는 자료나 비법,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 음식과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얇은 칼을 타임캡슐에 보관키로 결정한 한 업체 대표는 "이 칼은 우리 식당이 40여년 전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사용한 칼로, 이 무더진 칼날에 나와 우리 가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라며 "뽕뽕 해져 쓰지 못할 이 칼이 이렇게 귀하게 보관되게 됐다"며 감회어린 소감을 전했다. /기동취재반



한편, 전주음식 관련 자료를 담은 타임캡슐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한지로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캡슐은 올해부터 오는 2068년까지 50년간 한 국전통문화전당 한식자료실에 보관, 전주음식 아카이브 자료로 전시 및 활용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건강동행센터, 일차의료 시범사업 5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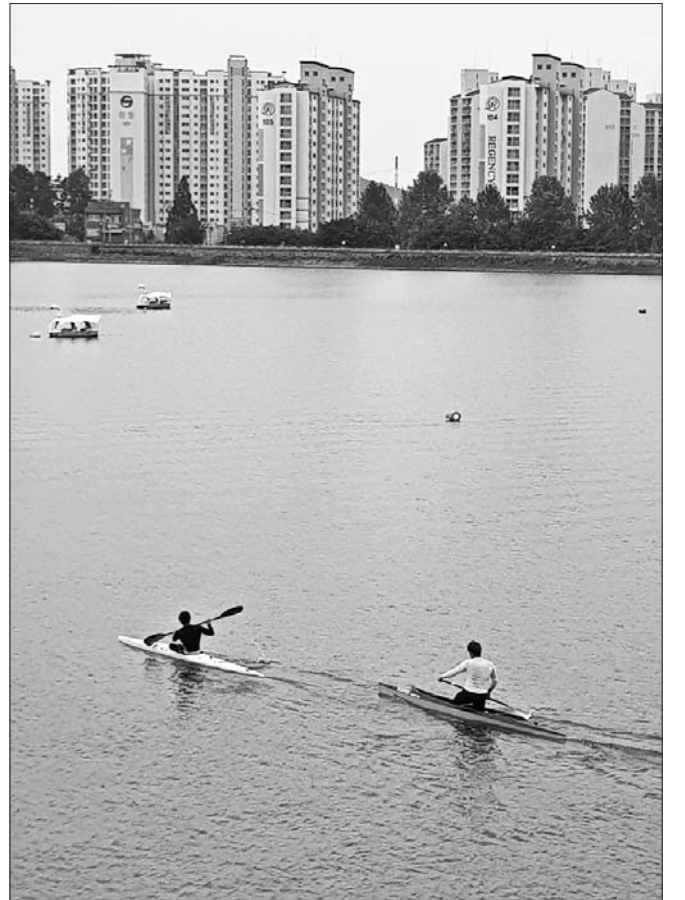
전주시가 고혈압·당뇨 환자 등 만성질환자 예방과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건강동행센터는 올해로 5년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전주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효과적인

자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찰과 처방,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동행센터는 필요시 만성질환자에게 운동과 영양, 교육 등을 제

공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참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만성질환자들에게 추가적 교육·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의사와 환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하는 등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차의료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건강동행센터(063-255-1775)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도심 속 여유 부처님오신날인 22일, 군산시 도심에 자리한 은파호수공원에서 조경보트와 오리배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추가 구속

1명 추가로... 폭력조직 활동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행을 집단 폭행한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을 집단 폭행하고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B(26)·C(25)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안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D(31)씨 일행 3명과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투던 중 D씨 등 2명을 둔기·주먹·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혐의다.

D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일행이 먼저 부른 택시에 A씨 일행 중 1명이 여자인 구를 먼저 태워 보내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5명은 주먹을 휘두른 직후

도로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간 D씨를 쫓아가 둔기로 2차례 내리치고 온 몸을 수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D씨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보강수사를 통해 A씨와 B·C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B·C씨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인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일행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 일행 8명 모두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지역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